

<b>&lt;읽기와 쓰기&gt; 제 4기 독후감</b>			
<b>■ 분반</b>	27반	<b>■ 학부</b>	컴퓨터공학
<b>■ 담당 교수</b>	허윤진	<b>■ 학번</b>	20171665
<b>■ 담당 조교</b>	곽진우	<b>■ 이름</b>	이선호
<b>■ 읽기자료</b>	성호 이익, 「병아리」, 김대중 편역,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다』(『성호사설』 편역본), 돌베개, 2010, 21~22쪽		
<b>■ 독후감 제목</b>	무조건적인 보살핌보다는 존중하는 자세로		
<b>■ 글의 개요</b>	<p>1. 서론</p> <p>1) 옛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치에 관한 조상들의 생각</p> <p>2) 성호 이익이 논하는 백성과 임금의 관계</p> <p>2. 본론</p> <p>1) 현대 시민 사회에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국가</p> <p>2) 그러나 단순히 시민을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볼 수 없는 이유</p> <p>3. 결론</p> <p>1) 보살핌보다는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의 정치적 자세 필요</p>		

※독후감은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 / 마지막에 글자 수 기입.

사람들은 바람직한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사설이나 칼럼 등 다양한 글들을 찾아 읽는다. 그 중 옛 사람들이 쓴 글을 찾아 읽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우리 조상들이 정치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어서일 것이다.

조선의 실학자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 중 「병아리」라는 글에서 병아리와 주인의 관계를 빗대어 군주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병아리는 아직 어려서 천적이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인은 모든 병아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를 뿌려 주고, 병아리의 항문이 변에 인해 막히지 않도록 자주 살펴보면서 항문 주변의 솜털을 잘라 줘야 한다. 즉, 주인은 병아리를 부지런히 보살피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백성과 군주와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데, 백성은 병아리처럼 임금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임금은 병아리를 보살피듯 백성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저자의 해석이 옛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정치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봐도 알 수 있다. 부패한 군주는 나라와 백성을 살피는 데에 등한시하여 원망을 샀고, 자칫 백성들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게 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 반면에, 지혜로운 군주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 청송을 받았고, 그들의 지지를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 오늘날 현대 시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면 시민들은 이에 분개하고 반발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만, 국가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면 시민들은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즉, 현대 사회에서도 국가는 병아리를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시민을 생각하며 정치를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러나, 저자의 해석을 현대 시민 사회 정치에 완전히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옛날과 같은 군주주의 사회에서는 저자가 피력한 바가 들어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생각이 존중받는 현대 민주주의 중심의 사회에서는 시민을 단순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의무 교육이 중요해진 오늘날 시민들의 교육 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고, 맥령을 자주 넘겨야 했던 시기와는 다르게 현재는 굶주림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라졌다. 즉, 오늘날의 시민들은 병아리처럼 약하고 여리지만은 않다. 만일 국가가 이들을 무조건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면 시민 개개인의 행동과 의견이 존중받지 못할 수 있고, 심지어 ‘독재’라는 위험한 정치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1960~70년대의 유신 체제 정권은 국민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도록 경제 성장을 표방하여 여러 정책을 내세웠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독재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를 과연 바람직한 정치로 볼 수 있을까?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할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필자는 국가가 “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즉, 필자가 제시한 해석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민을 병아리처럼 무조건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을 위하는 자세로 정치를 펼치되, 그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마치 청소년기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말이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면서도 자녀의 의견을 자주 묻고 들으면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려고 애쓴다. 이처럼 시민들을 잘 다스리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  
는 국가의 자세가 오늘날 진정으로 올바른 정치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백 포함 1,978자)